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가속도

기본·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

고창군은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박우정 군수와 각 실과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관리센터는 고창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후 체계적 관리와 주요 기능 수행을 위해 총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했으며 올해 5월 마무리 후 2017년 완공될 예정이다.

군은 관리센터 건립으로 생물권보전지역내의 생태환경, 역사문화,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능을 수용한 협력과 지원의 컨트롤타워, 주민교육 및 리더양성, 생물권보전지역 상품 마케팅 등 보

전·발전·지원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운곡 탐사르 습지 에코촌조성, 동림저수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1시군 생태관광지 조성, 국가지질공원 인증,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생태관광 산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관리센터 건립은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이 자연과 사람의 조화로움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 나가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갈 관리센터가 그 의미를 잘 담아내고 주민 편의증진과 생물권보전지역의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성규 기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탄력'

고창군, 보전·발전·지원기능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

고창군이 생물권보전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관리센터의 밑그림이 나왔다.

군은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박우정 군수와 각 실과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관리센터는 고창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후 체계적 관리와 주요 기능 수행을 위해 총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했으

며 올해 5월 마무리 후 2017년 완공될 예정이다.

군은 관리센터 건립으로 생물권보전지역내의 생태환경, 역사문화,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능을 수용한 협력과 지원의 컨트롤타워, 주민교육 및 리더양성, 생물권보전지역 상품 마케팅 등 보전·발전·지원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운곡 랍사르 습지 에코촌 조성, 동립저수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1시군 생태관광지 조성, 국가지질공원 인증,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생태관광 산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관리센터 건립은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이 자연과 사람의 조화로움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갈 관리센터가 그 의미를 잘 담아내고 주민 편의증진과 생물권보전지역의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조종욱 기자

전북도민일보

2016년 05월 12일 목요일 007면 지역

고창 생물권보전 관리센터 건립 '속도'

郡, 실시설계용역 최종 보고
58억원 투입 내년 완공기로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생물권보전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관리센터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박우정 군수와 각 실과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관리센터는 고창군이 유네스코 생

물권보전지역 등재 후 체계적 관리와 주요 기능 수행을 위해 총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했으며 올해 5월 마무리 후 2017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군은 관리센터를 건립해 생물권보전지역의 생태환경, 역사문화, 주민교육 및 리더양성, 생물권보전지역 상품 마케팅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컨트롤 타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운곡 랍사르습지 에코촌조성, 동립저수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1시군 생태관광지 조성,

국가지질공원 인증,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향후 생태관광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관리센터 건립은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이 자연과 사람의 조화로움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갈 관리센터가 그 의미를 잘 담아내고 주민 편의증진과 생물권보전지역의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남궁경중 기자

생물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가속

고창군(군수 박우정) 생물권보전지역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관리센터의 밑그림이 나왔다고 밝혔다.

군은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박우정 군수와 각 실과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관리센터는 고창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후 체계적 관리와 주요 기능 수행을 위해 총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했으며 올해 5월 마무리 후 2017년 완공될 예정이다.

군은 관리센터 건립으로 생물권보전지역내의 생태환경, 역사문화,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능을 수용한 협력과 지원의 컨트롤타워, 주민교육 및 리더양성, 생물권보전지역 상품 마케팅 등 보전, 발전, 지원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운곡 람사르 습지 에코촌조성, 동림저수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1시군 생태관광지 조성, 국가지질공원 인증,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생태관광 산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관리센터 건립은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이 자연과 사람의 조화로움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갈 관리센터가 그 의미를 잘 담아내고 주민 편의 증진과 생물권보전지역의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박용관 기자(sc0747@)

고창, 생물권보전역관리센터 건립 가속도

총 58억원 투입 17년 완공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지난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박우정 군수와 각 실과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관리센터는 고창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후 체계적 관리와 주요 기능 수행을 위해 총사업비 58

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17년 완공될 예정이다.

군은 관리센터 건립으로 생물권보전지역내의 생태환경, 역사문화,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능을 수용한 협력과 지원의 컨트롤타워, 주민교육 및 리더양성, 생물권보전지역 상품 마케팅 등 보전발전지원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창=김준완기자

전라매일

2016년 05월 12일 목요일 009면 지역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밀그림’

11일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총 사업비 58억 투입... 이달

마무리 후 내년 완공 예정

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을 종합·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관리센터의 밀그림이 나왔다.

군은 지난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박우정 군수와 각 실과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리센터는 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후 체계적 관리와 주요 기능 수행을 위해 총 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했으며, 이번달 마무리 후 내년 완공될 예정이다.

군은 관리센터 건립으로 생물권보전지역내의 생태환경, 역사문화,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능을 수용한 협력과 지원의 컨트롤타워, 주민교육 및 리더양성, 생물권보전지역 상품 마케팅 등 보전·발전·지원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운곡 탐사트 습지 예코존조

성, 동립저수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1시간 생태관광지 조성, 국가지질공원 인증,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생태관광 산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관리센터 건립은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이 자연과 사람의 조화로움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갈 관리센터가 그 의미를 잘 담아내고 주민 편의증진과 생물권보전지역의 가치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현 기자

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조성 가속도

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관리센터의 밑그림이 나왔다.

군은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박우정 군수와 각 실과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관리센터는 고창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후 체계적 관리와 주요 기능 수행을 위해 총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했으며 올해 5월 마무리 후 2017년 완공될 예정이다.

군은 관리센터 건립으로 생물권보전지역내의 생태환경, 역사문화,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능을 수용한 협력과 지원의 컨트롤타워, 주민교육 및 리더양성, 생물권보전지역 상품 마케팅 등 보전·발전·지원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우정 군수는 "주민 편의증진과 생물권보전지역의 가치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익희기자/syhee5311@hanmail.net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밀그림'

고창군, 설계용역 보고회 개최

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관리센터의 밀그림이 나왔다.

군은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박우정 군수와 각 실과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관리센터는 고창군이 유네스코 생물

권보전지역 등재 후 체계적 관리와 주요 기능 수행을 위해 총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했으며 올해 5월 마무리 후 2017년 완공될 예정이다.

군은 생물권보전지역내의 생태환경, 역사문화,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능을 수용한 협력과 지원의 컨트롤타워, 주민교육 및 리더양성, 생물권보전지역 상품 마케팅 등 보전, 발전, 지원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가속도

기본·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고창군(군수 박우정) 생물권보전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관리센터의 밀그림이 나왔다.

군은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박우정 군수와 각 실과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관리센터는 고창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후 체계적 관리와 주요 기능 수행을 위해 총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11월 기본 및 실

시설계 용역을 시작했으며 올해 5월 마무리 후 2017년 완공될 예정이다.

군은 관리센터 건립으로 생물권보전지역내의 생태환경, 역사문화,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능을 수용한 협력과 지원의 컨트롤타워, 주민교육 및 리더양성, 생물권보전지역 상품 마케팅 등 보전, 발전, 지원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운곡 탐사르 습지 에코촌 조성, 동림저수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1시군 생태관광지 조성, 국가지

질공원 인증,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생태관광 산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관리센터 건립은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이 자연과 사람의 조화로운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갈 관리센터가 그 의미를 잘 담아내고 주민 편의증진과 생물권보전지역의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정관진 기자

전주일보

2016년 05월 12일 목요일
010면 지역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용역 최종보고회

고창군은 11일 박우정 군수와 각 실과 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관리센터는 고창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후 체계적 관리와 주요 기능 수행을 위해 지난해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한 가운데 올해 5월 마무리 후 2017년 완공될 예정이다.

군은 관리센터 건립으로 생물권보전지역 내의 생태환경, 역사문화,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능을 수용한 협력과 지원의 컨트롤타워, 주민교육 및 리더 양성, 생물권보전지역 상품 마케팅 등 보전, 발전, 지원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운곡 람사르 습지 에코촌 조성, 동립 저수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등 다양한 생태관광 산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창=김태완 기자

“생물권 보전 가치향상 기대”

고창,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건립 용역 최종 보고... 2017년 완공 추진

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관리센터의 밑그림이 나왔다.

군은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박우정 군수와 각 실과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관리센터는 고창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후 체계적 관리와 주요 기능 수행을 위해 총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11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시작했으며 올해 5월 마무리 후 2017년 완공될 예정이다.

군은 관리센터 건립으로 생물권보전지역내의 생태환경, 역사문화,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능을 수용한 협력과 지원의 컨트롤타워, 주민교육 및 리더양성, 생물권보전지역 상품 마케팅 등 보전·발전·지원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운곡 랍사르 습지 에코촌 조성, 동립저수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1시군 생태관광지 조성, 국가지

질공원 인증,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생태관광 산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관리센터 건립은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이 자연과 사람의 조화로움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갈 관리센터가 그 의미를 잘 담아내고 주민 편의증진과 생물권보전지역의 가치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종성 기자 · kjs56730@daum.net

[고창소식]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순조' 등

【고창=뉴스시스】김종효 기자 =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순조'

전북 고창군이 생물권보전지역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관리센터 건립에 나선다.

군은 11일 군청에서 박우정 군수와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총사업비 58억원을 투입될 예정인 관리센터는 오는 6월 중에 발주한 후 곧바로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7년까지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관리센터는 생물권보전지역 상품 마케팅 등 보전·발전·지원기능과 함께 생태환경과 역사문화 등의 지역 고유 자원 연계, 주민 교육과 리더 양성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운곡 람사르습지 에코촌조성과 동림저수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1시군 생태관광지 조성, 국가지질공원 인증,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사업 등 다양한 생태관광 산업에도 관여한다.

박우정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해 나갈 관리센터가 그 의미를 잘 담아내고 주민 편의증진과 생물권보전지역의 가치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용역보고회



전북 고창군은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박우정 군수와 각 실과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 News1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국내에서 유일하게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고창군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가 건립된다.

군은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박우정 군수와 각 실과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관리센터는 고창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후 체계적 관리와 주요 기능 수행을 위해 총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했으며 올해 5월 마무리 후 2017년 완공될 예정이다.

군은 관리센터 건립으로 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내의 생태환경, 역사문화,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능을 수용한 협력과 지원의 컨트롤타워, 주민교육 및 리더양성, 생물권보전지역 상품 마케팅 등 보전·발전·지원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운곡 람사르 습지 에코촌조성, 동림저수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1시군 생태

관광지 조성, 국가지질공원 인증,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생태관광 산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관리센터 건립은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이 자연과 사람의 조화로움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갈 관리센터가 그 의미를 잘 담아내고 주민 편의증진과 생물권보전지역의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jcpark@

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가속도

"지속가능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로 지역 경쟁력 강화 "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고창군(군수 박우정) 생물권보전지역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관리센터의 밑그림이 나왔다.

군은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박우정 군수와 각 실과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관리센터는 고창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후 체계적 관리와 주요 기능 수행을 위해 총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했으며 올해 5월 마무리 후 2017년 완공될 예정이다.

군은 관리센터 건립으로 생물권보전지역내의 생태환경, 역사문화,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능을 수용한 협력과 지원의 컨트롤타워, 주민교육 및 리더양성, 생물권보전지역 상품 마케팅 등 보전,발전,지원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운곡 람사르 습지 에코촌조성, 동림저수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1시군 생태관광지 조성, 국가지질공원 인증,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생태관광 산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관리센터 건립은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이 자연과 사람의 조화로움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뤘다가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갈 관리센터가 그 의미를 잘 담아내고 주민 편의증진과 생물권보전지역의 가치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길 기자